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007.72 (+113.49)		836.27 (+9.15)
	금리 (연) 4.056 (+0.021)		환율 (한/달러) 1378.35 (-4.95)

‘6000원 시금치’ 못사고 발길 돌려 시장 상인·장보기 손님 모두 ‘한숨’

추석 소비 ‘K자형’ 양극화
백화점 식품관, 100만원 한우 등
고급 식료품 선물 매출 30% 증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시장은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제수용 채소를 구매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상인과 손님 모두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금치 매대 앞에서 멈춰 선 한 손님이 “시금치 한 단에 얼마냐”고 묻자 상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6000원은 받아야 남는다”고 답했다. 손님은 “몇 개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만 원이 넘는다”며 차마 잡어 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청과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은 “올여름 폭염에 잦은 비 때문에 물건을 꺼내는 단가 자체가 너무 올라 손님한테 가격 부르기가 겁난다”고 토로했다. 50대 주부는 “마트나 시장이나 비싼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사보려고 청과시장 도소매 매대를 서성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날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50만~10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와 30만~60만 원대 와인 진열된 매장에는 구매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만 몰렸다. 고급 식료품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고금리 여파 속에서 저가·할인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상품과 초고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는 ‘K자형 소비 양극화’ 현상이 명절 대목 시장의 지형도마저 완전히 바꿔버렸다. 알파벳 ‘K’자의 갈라지는 두 축처럼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는 서민·중산층의 구매력은 아래로 떨어져 ‘초가성비·알뜰 소비’로 내몰리는 반면, 자산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물가에 저항없이 위로 뻗어나가는 ‘프리미엄·고가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구조다.

◆날씨에 환율까지 전방위 물가 압력
올해 추석 물가가 치솟은 데는 이상이

후로 인한 공급 차질과 대외 경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여름 이어진 폭염과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시금치, 애호박(전년 대비 43% 상승), 무(24%), 도라지(23%) 등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대형마트 기준 배 가격도 22.4% 올랐다.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30만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랐다.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도 6인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 24만5000원, 대형마트 29만원 선으로 집계되며 가게의 장보기 부담을 입증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9달러 선을 위협하고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15달러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공식품과 운송비, 외식 물가를 전방위로 자극하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세금 부담 지적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는 총력전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제수용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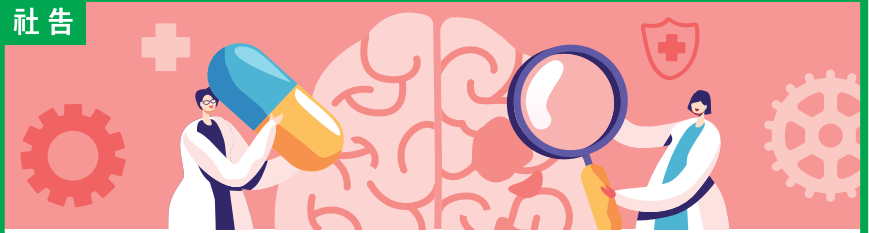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가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

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글로벌 위기 속 ‘신용등급 상향’… 투자자들에 ‘주목’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평가에서 신용등급이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됐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와 재무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AA’ 신용등급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받은 AA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치로 개인 보험 고객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갖춘 셈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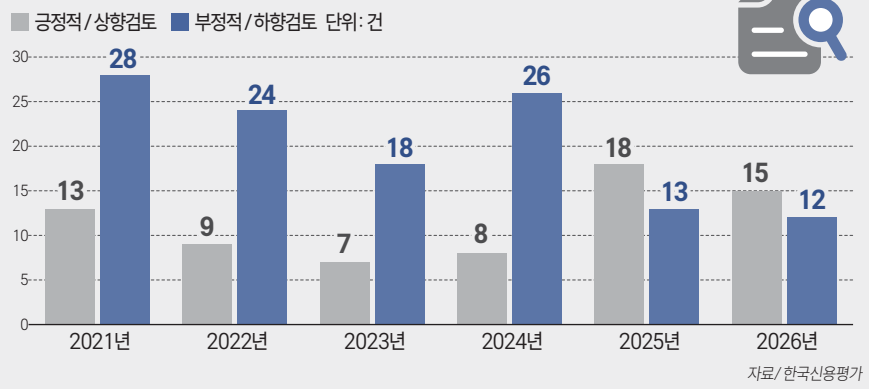
최근 SK하이닉스 등 4곳 신용상향 SK아이이테크놀 등 3곳 상향 전망 “조선·반도체·방산 등 우호적 업황 실적 개선에 신용상향 우위 뚜렷”

‘신용 리스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증시 활성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려는 글로벌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 등이 몰아친 시기에 기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7전파’(코스피 지수 7000) 시대의 선순환 효과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증시는 여러 경로로 경제와 기업에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소비를

신용등급 아웃룩·워치리스트 추이



늘려 내수 시장(기업 판매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기업의 실적(수출 확대)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 신용(Credit)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1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8월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된 곳은 SK하이닉스(Baa1

→A3), 금호타이어(A→A+), 한화엔진(BBB→BBB+), 삼성화재(AA→AA) 등이다.

등급 전망 가능성이 큰 곳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신용등급 상향 검토 등급 감시대상), SK어드밴스드(안정적→상향검토), SK이노베이션(부정적→안정적) 등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크레딧전략 연구

원은 “조선,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증권 등은 우호적 업황 속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신용등급 상향 우위가 뚜렷하다”며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지위 강화, 자본여력 확충 등도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신용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업의 장기 신용등급 상향배율은 0.79배였다. 상향배율은 신용사가 신용등급을 올린 회사를 등급을 내린 회사로 나눈 수치다. 1배 미만이면 신용등급을 내린 회사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신용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계 한 관계자는 “A등급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대외 신인도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진다”고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 낮은 자세로 국정 세밀히 다듬을 것”
▲與 “한동훈, 명백한 수사 대상…경찰 즉각 수사·국회 징계 촉구” /사진 뉴시스

▲합참 “서부전선 DMZ서 군 간부 3명 미상 폭발로 부상”
▲與 “조희대, 즉각 재제청 나서 ‘3부’의 상호존중 실천해야”

▲정부, 중수청 출범 앞 청사 현장 점검…청장 인선은 ‘정체’
▲한 총리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이 선택 받아야”…선순환 소비 강조